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음 4월 28일) 제18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국토부 2차관과 면담** 22일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대선공약 사업의 전복도 연계사업 및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도 국가 예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2면>

## 미래먹거리 드론산업 육성 '탄력'

국토부, 전주시내 '새만금 무인항공교육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  
전주시, 교육기관 유치 따라 맞춤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 기대

전주시가 정부공인 드론전문교육기관을 유치하면서 드론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국토부 드론 시범구역 지정 △3차원 공간정보 기반 드론 길 구축 시범지역 선정 △한·중 3D 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개최 △드론축구 등을 통한 레저스포츠산업 저변확대 등 드론산업을 향후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난구호와 항공방재 등 드론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을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정부공인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전북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드론조종면허 취득을 위해 수도권 등으로 원정교육을 다녀야 했던 전북도민들은 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송천동(두간로 9, 3층)에 위치한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은 총 178㎡ 규모로 강의실과 사무실이 구축돼 있으며, 완주군 소양면(신원리 557-1)에 약 7,920㎡ 규모의 천연잔디축구장을 실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간교육 수용인원은 총 190명으로 (쥬에어콕(310명),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300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규모로, 향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교육을 통해 재난구호와 항공측량, 항공방재, 항공촬영 등의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지도조종사 1명과 실기평가조종사 2명, 보조교관 3명 등 총 6명의 전문교관이 학과교육 5일(이론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교육 10일(비행훈련 20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개원 이후 총 7회기 교육을 통해 3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특히, 민간 사설 드론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응시하여야 하지만, 국토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은 자격증 취득시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 시행시 교통신용장단 감독관을 초빙해 자체 비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앞서, 시와 (주)새만금항공(대표 안홍진)은 지난해 8월부터 업체 사업자등록, 초경량비행장치 구입, 보험가입 및 신고, 강의실·사무실 구축,

이·착륙시설 구축, 전문교관 초빙(지도조종사, 실기평가조종사) 등을 거쳐 국토부 드론전문교육기관 인가 신청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은 전남 영암에 이어 호남권에서 2번째로 국토부에서 승인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승인한 드론전문교육기관은 수도권 6곳과 충청권 3곳, 영동권 1곳, 영남권 2곳, 호남권 2곳 등 모두 14곳이다.

전주시 관내 드론 전문교육기관 유치로 드론 조종면허 취득을 위해 타 지자체 원정교육을 다녀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드론 전문교육을 통한 맞춤형 드론 조종인력 양상으로 드론산업의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론 교육신청 및 일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새만금무인항공교육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275-481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 社告

##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5월 28일(일) 오후 4시  
장소: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남부시장 입구)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으로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
- ▲후원: 전북도, 전주시, 각 언론사, 전북장애인신문사
- ▲예선일시 및 장소: 5월 27일(토) 오전 10시, 인권상담소 회의실 ☎ 286-6678
- ▲문의: 063-286-6678, 285-6676, FAX) 287-6676

전주매일

##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자체들 '총성없는 전쟁중'

대통령 공약 계기로 경쟁 치열  
부처별 편성 마감 31일로 연장

대통령 공약에 전국 균형발전과 지역 인프라 사업이 대거 담기면서 이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이 곧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저마다 공약사업을 앞세워 증액 편성에 나섰다. 이를 위한 국고 확보에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둔 현안과 숙원사업 예산까지 포함돼 있어 지자체 간 경쟁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특히 각 부처 예산 편성 마감일 당초 26일에서 31일로 연장된 만큼 각 지자체들의 예산 반영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도 송하진 지사 및 부지사들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과 대선 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재욱 기자

9년 만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과거 새 정부는 12월 대선을 거쳐 이듬해 2월 말 출범했다. 이미 새해 예산이 확정된 후라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 즉각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되긴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올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이 곧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저마다 공약사업을 앞세워 증액 편성에 나섰다. 이를 위한 국고 확보에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둔 현안과 숙원사업 예산까지 포함돼 있어 지자체 간 경쟁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특히 각 부처 예산 편성 마감일 당초 26일에서 31일로 연장된 만큼 각 지자체들의 예산 반영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도 송하진 지사 및 부지사들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과 대선 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재욱 기자

##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5월 28일(일)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남부시장 입구)

- 예선일시 및 장소: 5월 27일(토) 오전 10시, 인권상담소 회의실 ☎ 286-6678
- 문의전화: 063-286-6678, 285-6676, FAX: 287-6676

공동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

